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적응적 정서조절의 관계: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among a Father's Rough-and-Tough Play,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오지현¹

Jihyun Oh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in detail the factors of the father's play interaction that predict children'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 father's rough-and-tough play toward a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on the child'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309 fathers of children aged from 3 to 5 years. Data were analyzed using models of the PROCESS Macro.

Resul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the father's rough-and-tough play with the child'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was that this was indeed mediated by the child's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dditionally, the father's responsive and fun play attitud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rough-and-tough play and the child'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Further, the father's responsive and fun play attitude according to level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derives a mechanism for why and how a father's rough-and-tough play affects children'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¹ 제1저자(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e-mail : ojh@chosun.ac.kr)

key words father's rough-and-tough play,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father's play participat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I. 서론

적응적인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고조된 정서의 각성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Thompson,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사회적 유능감을 촉진하고 이후 학령기의 사회성 발달

을 예측하는 요인이다. 유아기 정서조절 능력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활동에서부터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신체활동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한다(Roggman et al., 2000). 어머니는 자녀를 깨우고, 먹이고, 목욕하는 등 일상적인 돌봄 활동에서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Craig, 2006; Hook & Wolfe, 2012), 아버지는 놀이 활동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John et al., 2013).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들의 돌봄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로, 아버지는 놀이 친구로 함께하는 경향을 보인다(John et al, 2013; Lamb & Lewis, 2004). 아버지는 자녀와 놀이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빈번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Dumont & Paquette, 2013). 즉,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상호작용 양상은 어머니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상호작용의 특징을 논의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자녀와 신체 놀이를 더 많이 하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따라 놀이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Kuo et al., 2018). 아버지와 유아 간 신체 놀이의 빈도는 어머니보다 높은 편이며(Cabrera et al., 2014; Craig, 2006), 아버지의 모험적이고 재미있는 놀이는 유아의 안정 애착 발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n et al., 1999). 이는 애착의 구성요소를 안전과 양육뿐 아니라 탐험 및 도전, 용기에 대한 격려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연구 동향과도 맥을 같이한다(Fletcher et al., 2012). 아버지는 신체 놀이를 하는 동안 자녀와 활기 넘치는 접촉과 뛰기, 들기와 같은 움직임이 격렬하고(Meuwissen & Carlson, 2015), 거친신체놀이(rough-and-tough play: RTP)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aquette et al., 2003; StGeorge & Freeman, 2017).

거친신체놀이(RTP)는 쫓기, 잡기, 레슬링, 뛰기, 빙빙 돌기, 안고 구르기와 같이 장난기와 신체적 접촉이 많은 놀이유형이다. 또래 간 거친신체놀이와 다르게 부-자녀 간 거친신체놀이는 호혜적 관계 양상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Smith, 2010). 즉, 아버지가 공격과 방어의 흐름을 주도하면서도 때로는 아동이 주도하며 경쟁과 협력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아버지는 유아기 자녀와 경쟁적 신체 놀이에서 자주 이기기는 하지만 때로는 지는 척도 하는 등 아버지의 높은 놀이성(playfulness)을 발휘하며 즐거움을 공유한다. 이렇듯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온정, 민감성, 통제와 같은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과 개념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거친신체놀이 만의 핵심 요소인 ‘주도(dominance)’, ‘도전(challenge)’, ‘놀이성(playfulness)’이 포함된다(Fletcher et al., 2013). 이러한 거친신체놀이의 구성요소는 유아의 정서발달(Flanders et al., 2010)과 자기조절 능력(Peterson & Flanders, 2005)을 예측한다.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아동 발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StGeorge & Freeman, 2017), 아버지 거친신체놀이의 빈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정서 이해 및 표현, 정서조절, 자기조절 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녀 간 거친신체놀이는 자녀의 사회 정서적 유능감을 촉진하여 신체 및 언어적 공격 없이 타인과 경쟁할 수 있게 돕는다(Paquette et al., 2003). 또래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관련성이 있기도

하지만(노은아, 문병환, 2012),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공격성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StGeorge & Freeman, 2017). 오히려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많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차민주, 김낙홍, 2020; 홍유정, 한세영, 2020).

요컨대,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기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어떻게, 왜’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탐색은 미흡한 편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에게 흥미와 긍정정서를 유발한다(Smith, 2010). 게임 놀이의 경우 승자와 패자가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거친신체놀이는 덜 경쟁적이며(Anderson et al, 2019) 전쟁, 괴물 놀이와 같은 가상놀이도 포함된다(최효원, 김낙홍, 2021). 이러한 거친신체놀이를 하는 동안 유아는 고양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한다. 즉,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경쟁심, 도전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정서 표현이 빈번해진다. 이때 유아는 타인의 감정표현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공격적 충동을 조절하는 연습을 한다(Peterson & Flanders, 2005). 이와 더불어 아버지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공격과 방어를 조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기술 습득을 도울 수 있다(차민주, 김낙홍, 2020). 따라서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정서표현성을 촉진하고 이는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표현성은 행복, 기쁨과 같은 긍정 정서와 슬픔, 화, 실망 등의 부정 정서 표현 정도를 뜻한다(Halberstadt et al., 1995). 영유아기의 정서표현은 의사전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양육자 또는 교사가 영유아의 욕구에 주목하도록 유도한다(Rosen, 2016). 영유아기의 정서표현은 양육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양육자와 상호적 의사소통은 목소리와 표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의지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촉진한다(Cassidy, 1994). 유아기의 정서표현은 또래관계가 확장되면서 더 중요해지고, 정서 이해 및 적응적 정서조절 향상과 관련성이 높다(Cole et al., 2009). 또한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며 부정적 정서 표현의 표출이 많아진다. 부정정서의 발생 원인은 목표 달성 및 욕구 충족과 관련 있다(Izard, 1991). 유아가 원하는 목표가 좌절되거나 성취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과 좌절을 느끼기도 하지만 슬픔정서의 표현을 통해 타인의 도움 행동을 유발하고, 분노정서의 표현을 통해 자기를 방어한다. 또한, 유아가 두려움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유아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배운다면 유아는 두려움을 도움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극으로 연관 짓거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환경으로 옮길 수 있다(Izard et al., 2011). 이렇듯 유아는 정서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처하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궁극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반응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구별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또래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적 정서조절에 도움이 된다(Vaish et al., 2009).

종합하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는 유아의 정서표현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정서 함양과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도움으로써 적응적 정서조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와 유아의 정서표현성,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련

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버지의 놀이 행동이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놀이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Robinson et al., 2021). 따라서 놀이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놀이참여태도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놀이참여태도는 부모가 놀이에 참여하는 동안 유아의 감정 및 욕구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요인과 즐겁게 놀이하며 반응적인 행동 요인으로 정의한다(김리진, 이소연, 2018).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 중 반응성, 친밀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면서 유아의 정서표현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연 등, 2018; Tamis-LeMonda et al., 2004). 상기한 관점에 근거하여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와의 놀이를 즐기고, 놀이하면서 표출되는 유아의 다양한 정서 표현에 대해 수용적일 가능성이 크다.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이 많을수록 유아는 타인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의 감정을 나타내는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향상된다(Eisenberg et al., 1999; Ladd & Le Sieur, 1995).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놀이참여태도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요컨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수준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성이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는 유아의 높은 정서표현성을 통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이론모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접근법을 활용하여 통합적 이론모형을 발견(정선호, 서동기, 2016)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관련분야의 연구동향을 고려해 볼 때,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Eisenberg et al., 1998),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및 정서표현성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 반면 아버지의 특성이 반영된 요인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회귀 기반의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절차에 대한 제안(Cole et al., 2008)을 근거로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성(긍정정서표현, 부정정서표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민감하게 인지하기,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유아의 정서표현성을 통해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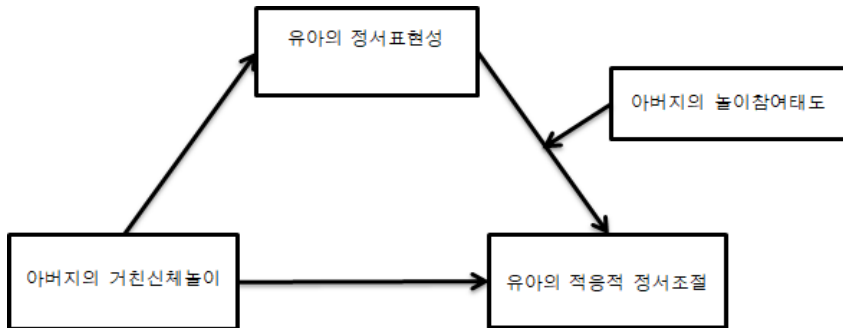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3, 4, 5세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 = 309)

변 수		빈도 (%)
아버지의 연령	20~29	4(1.3)
	30~39	158(51.1)
	40~49	141(45.6)
	50~59	6(1.9)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8.4)
	전문대학 졸업	44(14.2)
	4년제 대학 졸업	187(60.5)
	대학원 이상	52(16.8)
유아의 연령	만 5세	121(39.2)
	만 4세	114(36.9)
	만 3세	74(23.9)
유아의 성별	남아	154(49.8)
	여아	155(50.2)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본 연구는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윤영희(2011)의 척도를 활용했다. 본 질문지의 구성은 첫째,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예: 쫓아가고 쫓기는 놀이를 한다, 장난으로 싸운다, 장난으로 밀고 끌어당긴다)가 9문항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둘째, 아버지와 자녀가 거친신체놀이를 즐기는 정도는 2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셋째, 거친신체놀이 형태별 참여 빈도 3문항으로 ‘거의 하지 않는다(1점)’에서 ‘일주일에 5회 이상(4점)’으로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소연 등(2018)이 개발하여 백선정(2020)이 수정, 보완한 놀이참여태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질문지의 하위요인은 ‘민감하게 인지하기’ 7문항(예: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놀이를 하고 싶은지 안다,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과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10문항(예: 아이와 놀이할 때 내 목소리나 행동을 아이의 기분에 맞춘다, 아이의 놀이수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논다)으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민감하게 인지하며 놀이하기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민감하게 인지하기’ .83,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88 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표현성 척도(King & Emmons, 1990)를 수정 및 타당화한 척도(오연경, 2017)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정서표현성’ 5문항(예: 자녀는 많이 웃는 편이다), ‘부정정서표현성’ 4문항(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는 실망을 표현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하고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표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긍정정서표현’ .79, ‘부정정서표현’ .70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와 Cicchetti(1997)의 정서조절능력척도를 박익새(2012)가 유아용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24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하위요인으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응적 정서조절 9문항(예: 자녀는 또래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자녀는 자신의 욕구가 바로 채워지지 않아도 채워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M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M은 약 160만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널 구성이 지역과 성비 그리고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리서치 업체의 패널 선정 방법은 온라인 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응답자 선정을 위한 질문이 설문 순서에서 가장 먼저 구현이 된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첫 번째 선정 질문으로 성별 문항과 출생연도 문항이 있다. 이유는 패널들이 최초 패널 가입 시 입력한 정보와 다르게 기입할 경우 조사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별을 하기 위해 문항이 제시되고 대상자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는 탈락된다.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만 3, 4, 5세 자녀를 둔 20대 이상 아버지를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례 수를 확인한 결과 1종오류 .05, 검정력 .90의 조건 하에 313명의 연구참여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중도 탈락과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320부를 의뢰하였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09부이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3년간 보관된 후 파기할 것이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0.0(IBM Co., Armonk, NY)과 SPSS Macro version 3.5(Hayes, 2017)를 사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SPSS PROCESS의 모델 4, 1, 14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간접효과와 유의성은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도와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의 평균값은 각 척도 총점의 중앙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민감하게 인지하기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그리고 유아의 긍정정서표현성과 적응적 정서조절의 평균은 각 척도 총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값과 가깝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인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높고 유아의 긍정정서표현성 및 적응적 정서조절 수준

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척도 총점의 하위 점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대표하기는 어려운 집단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의 경우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r = .17, p < .01$)과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r = .24, p < .001$)과 긍정정서표현성($r = .63, p < .001$)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인 민감하게 인지하기($r = .49, p < .001$)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기($r = .50, p < .001$)는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N = 309)

	1	2	3	4	5	6
1.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					
2. 유아의 부정정서 표현성	.17**	-				
3. 유아의 긍정정서 표현성	-.05	.35***	-			
4. 아버지의 민감하게 인지하기	-.06	.32***	.51***	-		
5.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03	.25***	.49***	.75***	-	
6.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04	.24***	.63***	.49***	.50***	-
<i>M</i>	29.35	18.57	26.95	27.02	38.65	32.45
<i>SD</i>	6.56	3.72	4.42	3.69	5.19	4.31

* $p < .05$, ** $p < .01$, *** $p < .001$.

2. 매개효과 분석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하여 Hayes(2017)의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모델 4를 적용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을 예측하였고($\beta = .17, p < .001$),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은 적응적 정서조절($\beta = .25, p < .001$)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의 계수는 .04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연구결과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동일하지 않아 비일관적 매개모형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총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완전 매개효과로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김하형, 김수영, 2020). 다시 말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통해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긍정정서표현성의 경우 간접효과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3. 매개효과분석

(N = 309)

경로	β	SE	t	p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총효과)	-.08	.03	-7.74	.45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직접효과)	.17	.95	16.40	.00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 →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직접효과)	.25	.06	4.52	.00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직접효과)	-.04	.03	-1.54	.12
		간접효과 Boot SE	95%CI	
			LLCI	ULCI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 →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04	.01	.01	.08

3. 조절효과 분석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모델 1을 활용하였는데, 앞선 매개효과 결과를 반영하여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만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과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2, p < .05$). 반면 민감하게 인지하기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연구결과에서 독립과 조절변수의 부호가 같고 상호작용 변수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Gardner 등(2017)의 분류에 따라 약화효과(weakening effect) 중 대체효과(substituting effect)에 해당한다. 즉,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은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수준에 따라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수준이 평균과 1 표준편차 낮은 경우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1 표준편차 높은 수준에서부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가 1 표준편차 이상 높으면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 조절효과분석

(N = 309)

변수	b	SE	t	95% CI	
				LLCI	ULCI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	.14	.06	2.39*	.02	.25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39	.04	9.32***	.30	.47
상호작용항	-.02	.01	-2.22*	-.03	-.00
$F(df_1, df_2)$			39.27***(3,305)		
R^2			.28		

* $p < .05$, *** $p < .001$.

표 5. 단순기울기의 유의성 검증

변수	B	SE	t	95% CI	
				LLCI	ULCI
-1SD	.24	.07	3.29	.10	.39
0	.13	.05	2.39	.02	.25
+1SD	.02	.07	.38	-.12	.18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 중 부정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하위요인 중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과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변수만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을 통해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모델 14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b = .10, p < .01$)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과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상호작용항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b = -.02, p < .01$). 이와 더불어 조절된 매개지수 값($-.002, [95\%CI] = .001 \sim .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PROCESS를 활용한 상호작용효과의 시각적 도식화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이 낮더라도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태도가 많으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진 반면,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은 높는데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가 적으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태도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일 때부터 간접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간 관계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N = 309)

변수	b	SE	t	95%CI	
				LLCI	ULCI
X: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10	.03	3.06**	.03	.16

표 6. 계속

Variable	b	SE	t	95%CI	
				LLCI	ULCI
X: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02	.03	-.83	-.09	.03
Me: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	.15	.06	2.51*	.03	.27
Mo: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재미있게 놀기	.38	.04	9.22***	.30	.47
상호작용항(MeMo)	-.02	.01	-2.15*	-.04	-.00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단순기울기의 유의성 검증

Variable	Effect	Boot SE	95%CI	
			LLCI	ULCI
-1SD	.02	.01	.001	.05
Mean	.01	.01	.001	.03
+1SD	.00	.01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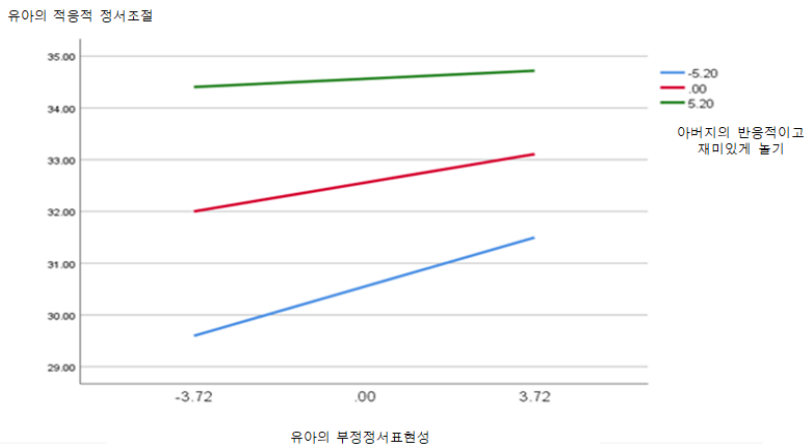


그림 2.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가 유아의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하여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에 대한 통합

적 이론모형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을 통해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유아의 공격성을 낮추고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Carson et al., 1993; StGeorge & Freeman 2017)와 맥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거친신체놀이는 긍정정서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등 인지적 자발성이 향상된다(김보민, 2006; 고여훈, 2013). 예를 들면 상상 놀이의 주제 중에서도 전쟁, 싸움 및 괴물 놀이와 같은 힘과 경쟁이 필요로 하는 놀이를 아버지와 유아 모두 웃으며 즐긴다(최효원, 김낙홍, 2021). 이러한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에게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기반으로 더 적극적으로 역할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유아는 자신의 부정정서를 놀이의 형태로 표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 놀이 중에 발생하는 긍정적 감정은 신체 및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해주고 표출되는 부정정서와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O'Connor et al., 2015). 이처럼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에게 분노와 공격성 등의 부정정서를 표출하면서도 조절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부정정서표현의 억압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Gross & Cassidy, 2019), 내재화 행동 문제와 관련이 높다(Zeman et al., 2002). 다시 말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을 촉진하며 이는 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하는 바이다.

반면, 유아의 긍정정서표현성의 경우 간접효과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유아의 부정정서 및 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유아의 긍정정서 증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홍유정, 한세영, 2020)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 행동이 많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오지현, 2022)와도 맥을 같이한다. 유아는 신뢰하는 타인에게 사랑받는다 느낄 때와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을 통해 기쁨 정서를 표현한다(정상녀, 김경숙, 2010). 즉,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보다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관심 및 애정, 격려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양육 태도가 유아의 긍정정서표현을 예측하는 요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긍정적 양육 태도는 유아의 자기 확신, 성취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스럽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증진됨으로써 긍정정서표현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과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 수준이 높더라도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가 적으면 유아의 적응적 조절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에 의해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연구결과에서 놀이참여태도의 하위요인 중 민감하게 인지하기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놀이성은 상상력, 유머, 융통성을 포함하는 내재적 성향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반응적이고 재미있게 놀이하기 태도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 놀이 상호작용에서 유아에게 지지적이면서도 익살스

럽고 유쾌한 아버지의 태도는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증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의는 아버지의 놀이성과 공감적 정서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오지현, 임시형, 2018)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놀이성 보다는 높은 민감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돕는 중재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는 놀이성 수준이 유아의 불안정한 정서 통제 능력을 완화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 결과(Menashe-Greiner & Atzaba-Poria, 2017)와 맥을 같이한다. 요컨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향상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는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는 행동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정서 표현성과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관계에서 부정정서표현성의 간접효과는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태도에 따라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른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수준이 평균보다 높으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가 많아서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 수준이 높더라도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태도가 낮거나 평균이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을 촉진하고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이 향상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 참여와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이 낮고 높음에 상관없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연구결과는 놀이참여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단, 아버지와 놀이를 통해 자녀와의 정서 교류가 빈번해지고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최혜순, 김찬숙, 2011)와 아버지가 놀이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전숙희, 이희선, 2016)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부모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osen, 2016).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적 도식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된다(Eisenberg et al., 1996; Thompson, 1998).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반응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Mcdowell & Parke, 2005; Valiente & Eisenberg, 2006). 이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지영, 이강이, 2021)와도 일맥상통한다.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는 자녀의 표현과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즉, 놀이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적인 반응도 포함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수용적인 반응이 많고 즐겁게 놀이를 유지하는 태도가 빈번하다면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을 촉진하고 이는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이러한 매개모형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 또한 확인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연구결과와 고찰을 통한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정서조절 간 관계에 대한 기제를 탐색하였고 단계적으로 통합적 이론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변수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 요인과 부-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는 유아의 부정정서표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아버지의 놀이 참여태도 중 반응적이고 재미있게 놀기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 상호작용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함양을 위한 아버지 놀이참여태도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정 보육 비율은 73.3%로 나타났으며(최윤경, 2020), 어머니에게 역할부담이 가중되면서 어머니의 신체적 소진과 정서적 어려움이 컸다(배은정, 2021; 이민지, 오지현, 2022). 또한, 어머니들은 가정 보육으로 인해 유아기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 증진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갖고 있었다(이민지, 오지현, 202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본연구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 그중에서도 놀이참여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자녀와 놀이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인 아버지의 촉진적 의사소통 및 반응 기술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성과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의 측정이 아버지가 보고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놀이참여태도 측정 방법이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척도는 놀이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연구결과만으로는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StGeorge et al., 2021)에서 거친신체놀이의 양도 중요하지만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정의한 거친신체놀이의 질(RTPQ: Quality of Father Rough-and-Tumble Play)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추후 연구에서는 RTPQ척도(Fletcher et al., 2012)를 활용하여 거친신체놀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를 관찰, 측정한다면 거친신체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고여훈 (2013). 하늘반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특징과 교사의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리진, 이소연 (2018).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놀이참여태도 척도 문항

- 개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1(3), 379-397. <https://doi.org/10.17641/KAPT.21.3.5>
- 김보민 (2006). 놀이 유형별 아버지의 참여 수준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형, 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https://doi.org/10.22257/kjp.2020.3.39.1.91>
- 노은아, 문병환 (2012).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자아탄력성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2(5), 101-119.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5.005>
- 박익새 (2012).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은정 (2021).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선정 (2020).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부모의 놀이참여수준 및 놀이참여태도의 인과적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연경 (2017). 부모의 유머스타일이 유아의 정서표현성 및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지현 (2022). 부-자녀 간 거친신체놀이와 유아의 정서표현성 관계에서 아버지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3(5), 1359-1373. <https://doi.org/10.22143/HSS21.13.5.95>
- 오지현, 임시형 (2018).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성, 공감적 정서반응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9(6), 113-130. <https://doi.org/10.5723/kjcs.2018.39.6.113>
- 윤영희 (2011). 만 5세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또래 유능성, 자기 역량지각의 예측변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지, 오지현 (202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3(2), 295-312. <https://doi.org/10.7856/kjcls.2022.33.2.295>
- 이소연, 위영희, 유재령, 정운주, 이영애, 김리진 (2018). 영유아 부모의 놀이참여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1(4), 491-507. <https://doi.org/10.17641/KAPT.21.4.4>
- 이지영, 이강이 (202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1), 119-134. <https://doi.org/10.5723/kjcs.2021.42.1.119>
- 전숙희, 이희선(2016).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5), 115-136.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5.115>
- 정상녀, 김경숙 (2010). 3세 유아의 기본정서 인식 및 표현에 대한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499-537.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https://doi.org/10.22257/kjp.2016.03.35.1.257>
- 차민주, 김낙홍 (2020). 아버지와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의 자기 통제력, 공격성, 또래 유능성에

-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189-219. <https://doi.org/10.20437/KOAECE25-5-07>
- 최윤경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보건복지포럼*, 290(12), 50-63. <http://dx.doi.org/10.23062/2020.12.5>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 최효원, 김낙홍 (2021). 아버지와 유아기 자녀의 거친 신체놀이의 의미 탐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4), 75-105. <https://doi.org/10.22154/JCLE.22.4.4>
- 홍유정, 한세영 (2020). 아버지의 거친신체놀이와 양육참여 및 리더십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동학회지*, 41(2), 103-115. <https://doi.org/10.5723/kjcs.2020.41.2.103>
- Anderson, S., StGeorge, J., & Roggman, L. (2019). Measuring the quality of early father-child rough and tumble play: tools for practice and research, *Child & Youth Care Forum*, 48(6), 889-915. <https://doi.org/10.1007/s10566-019-09513-9>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28-249. <https://doi.org/10.1111/j.1540-5834.1994.tb01287.x>
- Cabrera, N., Fitzgerald, H. E., Bradley, R. H., & Roggman, L., (2014). The ecology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An expanded model.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6(4), 336-354.
- Carson J., Burks, V., & Parke, R. D. (1993). Parent-child physical play: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In K. MacDonald (Ed.), *Children's play in society* (pp. 197-22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ole, M. S., Walter, F., & Bruch, H. (2008). Affective mechanisms linking dysfunctional behavior to performance in work teams: A moderated mediation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5), 945 - 958. <https://doi.org/10.1037/0021-9010.93.5.945>
- Cole, P. M., Dennis, T. A., Smith-Simon, K. E., & Cohen, L. H. (2009).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nderstanding: Relations with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self-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8(2), 324-352.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8.00503.x>
-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259-281. <https://doi.org/10.1177/0891243205285212>
- Dumont, C., & Paquette, D. (2013). What about the child's tie to the father? A new insight into fathering, father - child attachment,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activation relationship theor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30-446.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11592>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854.x>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 Guthrie, K. I.,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https://doi.org/10.1111/1467-8624.0003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Flanders, J. L., Simard, M., Paquette, D., Parent, S., Vitaro, F., Pihl, R. O., & Séguin, J. R. (2010). Rough-and-tumble play and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 fiv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4), 357-367. <https://doi.org/10.1007/s10896-009-9297-5>
- Fletcher, R., StGeorge, J., & Freeman, E. (2012). *Rough and tumble play quality (observational coding grid v2.2)*. University of Newcastle
- Fletcher, R., StGeorge, J., & Freeman, E. (2013). Rough and tumble play quality: Theoretical foundations for a new measure of father - child interaction,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83*(6), 746 - 759.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23439>
- Gardner, R. G., Harris, T. B., Li, N., Kirkman, B. L., & Mathieu, J. E. (2017). Understanding "It Depends" in organizational research: A Theory-Based taxonomy,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concerning interactive and quadratic relationship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0*(4), 610-638. <https://doi.org/10.1177/1094428117708856>
- Gross, J. T., & Cassidy, J. (2019). Expressive sup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ory, data, and a guide for futur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55*(9), 1938 - 1950. <https://doi.org/10.1037/dev0000722>
- Grossmann, K. E., Grossmann, K., & Zimmerman, P. (1999). A wider view of attachment and exploration.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760-786). Guilford Press.
- Halberstadt, A., Casib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https://doi.org/10.1037/1040-3590.7.1.93>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Guilford Press.
- Hook, J. L., & Wolfe, C. M. (2012). New fathers? Residential fathers' time with children in four countries. *Journal of Family Issues, 33*(4), 415-450. <https://doi.org/10.1177/0192513x11425779>
- Izard, C.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Plenum.
- Izard, C. E., Woodburn, E. M., Finlon, K. J., Krauthamer-Ewing, E. S., Grossman, S. R., & Seidenfeld, A. (2011). Emotion knowledge, emotion utilization, and emotion regulation. *Emotion Review, 3*(1), 44-52. <https://doi.org/10.1177/1754073910380972>
- John, A., Halliburton, A., & Humphrey, J. (2013). Child-mother and child-father play interaction patterns

- with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83-497.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11595>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 - 877.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Kuo, P. X., Braungart-Rieker, J. M., Lefever, J. E. B., Sarma, M. S., O'Neill, M., & Gettler, L. T. (2018). Father's cortisol and testosterone in the days around infants' births predict later paternal involvement. *Hormones & Behavior*, 106, 28-34. <https://doi.org/10.1016/j.yhbeh.2018.08.011>
- Ladd, G. W., & Le Sieur, K. D. (1995). Parents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pp. 377-409). Earlbaum.
- Lamb, M. E., & Lewis, C. (2004).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two-parent famili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94-153). John Wiley & Sons Inc.
- Mcdowell, D. J., & Parke, R. D. (2005). Parental control and affect as predictors of children's display rule use and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Social Development*, 14(3), 440-457.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5.00310.x>
- Menashe-Grinberg, A., & Atzaba-Poria, N. (201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play interaction: The importance of parental playfulness as a moderator of the links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child negativi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8(6), 772-784. <https://doi.org/10.1002/imhj.21678>
- Meuwissen A.S., & Carlson, S. M. (2015). Fathers matter: The role of father parenting in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0, 1-15. <https://doi.org/10.1016/j.jecp.2015.06.010>
- O'Connor, K. J., Schaefer, C. E., & Braverman, L. D. (2015). *Handbook of play therapy*. John Wiley & Sons Inc.
- Paquette, D., Carbonneau, R., Dubeau, D., Bigras, M., & Tremblay, R. E. (2003). Prevalence of father-child rough-and-tumble play and physical aggression in preschool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2), 171-189. <https://doi.org/10.1007/BF03173483>
- Peterson, J. B. & Flanders, J. L. (2005). Play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In R. E. Tremblay, W. H. Hartup, & J. Archer (Eds.), *Developmental Origins of Aggression* (pp. 133-157). Guilford Press
- Robinson, E. L., StGeorge, J., & Freeman, E. E. (2021). A Systematic Review of Father - Child Play Interactions and the Impacts on Child Development. *Children*, 8(5), 389. <https://doi.org/10.3390/children8050389>
- Roggman, L. A., Boyce, L., & Newland, L. (2000). Assessing mother-infant interaction in play. In K. Gitlin-Weiner, A. Sandgrund, & C. Schaefer (Eds.),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pp.

- 303-339). John Wiley & Sons, Inc.
- Rosen, K. S. (2016).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emerging self*. Palgrave/Macmillan.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https://doi.org/10.1037/0012-1649.33.6.906>
- Smith, P. K. (2010). Physical activity play: Exercise play and rough-and-tumble. In P. K. Smith (Ed.), *Children and play: Understanding children's worlds* (pp. 99 - 123). Wiley-Blackwell
- StGeorge, J., & Freeman, E. (2017). Measurement of father-child rough-and-tumble play and its relations to child behavio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8*(6), 709-725. <https://doi.org/10.1002/imhj.21676>
- StGeorge, J. M., Campbell, L. E., Hadlow, T., & Freeman, E. (2021). Quality and quantity: A study of father - toddler rough-and-tumble pla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 1275-1289. <https://doi.org/10.1007/s10826-021-01927-1>
- Tamis-LeMonda, C. S., Shannon, J. D., Cabrera, N. J., & Lamb, M. E.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 and 3 year 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18.x>
- Thompson, R. A. (1998). Emotional compete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 *Psychological Inquiry, 9*(4), 308-309.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4
- Thompson, R. A. (2014). Socialization of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J.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2nd ed., pp. 173-186). Guilford Press.
- Vaish, A., Carpenter, M., & Tomasello, M. (2009). Sympathy through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nd its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in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534 - 543. <https://doi.org/10.1037/a0014322>
- Valiente, C., & Eisenberg, N. (2006). Parenting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Role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D. K. Snyder, J. Simpson, & J. N. Hughes (Eds.),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pp. 123 - 14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468-006>
- Zeman, J., Shipman, K., & Suveg, C. (2002). Anger and sadness regulation: Predic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93 - 398.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103_11

논문투고: 22.12.15.

수정원고접수: 23.01.25.

최종게재결정: 23.02.06.